

광주 예술인들 태반이 月 수입 150만원 이하

광주문화재단 지역 예술인 344명 실태조사

2명중 1명 꼴 4대보험 미가입...63% 생활고 시달려

수입보장 환경 조성 시급...亞 전당과 소통창구 필요

젊은 한국화가 A씨는 주중 오후에는 일선 초등학교에서 방과 후 수업을 해 100만원가량을 벌며 생활하다 최근 중국으로 건너갔다. 인도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40대 화가 B씨도 매일 저녁, 광주시 동구 한 고깃집에서 불판을 뒤으며 그림을 그어야 했다. 조각가 C씨도 최근 작품 활동보다는 카페나 식당을 리모델링하

는 일에 몰두하고 있다. 3년 전 첫 소설집은 낸 D씨도 최근 화순군의 한 문화센터에서 글쓰기 강좌를 시작했다.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다. 광주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예술인 중 48.8%는 4대 보험(국민연금·고용·국민건강·산재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을 갖지 않은 전문 예

술인이 많은 탓이지만 그만큼 예술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기본적인 사회 보장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뜻이다. 예술인 절반 가량은 한 달 벌이가 150만원 이하였다. 광주문화재단이 최근 이 지역 예술인 344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는 문화중심도시 광주의 위상에 걸맞지 않을 정도로 참담했다. 이 중 4대보험 가입자는 51.2%에 불과했고 월평균 소득별로는 201만~300만원 24.7%, 150만원 이하 46.7%, 151만~200만원 14.6%, 301만~400만원 9.4%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예술인들의 4대보험 가입률이 낮고 벌

이가 신통찮은 것은 대부분 작업에만 몰두하고 정규직 비율이 낮기 때문이다. 이들 중 54.0%는 작업만 하는 전문예술가였고, 정규피고용직은 21.3%에 머물렀다. 임시 고용직은 11.8%, 자영업은 8.7%로 조사됐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설문문에 참여한 예술인 중 63.1%는 경제적 어려움을 문화예술 활동 중 겪고 있는 애로사항 1순위로 꼽았다. 이어 국제교류 기회 부족(23.3%), 시민의 무관심(20.8%), 창작물 발표기회 부족(14.0%), 지원사업의 특정 장르 편중(13.5%), 창작활동 공간 마련(12.9%) 등의 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했다. 이 같은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시급

히 필요한 지원사업으로는 전용공간 및 시설확충(40.1%)을 첫 손에 꼽았다. 이어 시민과 함께하는 프로그램마련(13.5%), 사업홍보(7.6%), 해외 진출 지원(6.4%), 예술인 협업시스템 구축(6.1%) 등을 1순위로 지원해야 한다고 답했다. 또 아시아문화전당과 지역 문화예술계와의 연계를 위해 필요한 것 1순위로 문화전당과 지역예술계 간 소통창구 설치를 요구한 응답이 36.3%로 가장 많았고, 창작 활동을 위한 시설 장비 지원이 29.4%였다. 이어 지역 문화예술유관 기관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답변도 22.4%였다. 이 밖에 응답자의 대다수는 광주가 문화

예술 활동의 장으로서 제약이 많고, 다른 지역에 비해 예술가를 위한 지원사업에 인색하다고 지적했다. 예술인들은 광주 시민의 무관심과 관공서의 비전문성 등을 문화예술 활동의 제약요소로 손꼽았다. 그나마 응답자 중 88.4%는 광주에서 지속적으로 예술 활동을 하겠다고 답했다. 광주문화재단 관계자는 "많은 예술인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적절한 수입이 보장될 수 있는 예술 환경 조성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정부의 지역문화진흥기금계획 수립을 위한 이 지역 문화현황 파악을 위해 진행됐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U대회 시민서포터즈 발대 21일 오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앞 5·18민주광장에서 열린 '제50회 광주시민의 날' 행사에서 광주 U대회 시민서포터즈 발대식이 열리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공무원 성과급 재분배 '차단'

행자부 규정 보완...年 1회 지급실태 점검·지자체 감사

행정자치부는 일부 자치단체에서 발생한 공무원 성과 상여금(성과급) '재분배'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보완한다고 21일 밝혔다. 공무원 성과급은 각 공무원의 성과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보수로, 균등배분 행위가 드러나면 이듬해 성과급을 주지 않도록 행자부 예규(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규정돼 있다. 그러나 최근 광주시 서구청 노동조합 주도로 지급받은 성과급을 회수, 균등배분하려는 시도가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성과급 재분배가 드러나면 이듬해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균등배분한 성과급도 환수한다. 해당 지자체는 행자부로부터 '경고'를 받고, 행정·재정적 불이익을 받게 된다. 행자부는 현

행 지방공무원 보수 지침에 이 같은 내용을 보완하면서 해당 예규를 대통령령(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으로 격상, 법적 근거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광주시 서구청 노조는 "공무원 성과급 제도는 그 성과를 평가하는 명확한 기준이 없어 자치단체장의 공무원 출신우기를 부를 뿐 아니라 대국민 봉사 업무인 공무에 대해 민간 기업의 논리를 가져와 평가하고 경쟁시킨다는 것 자체가 옳지 않다"면서 "행자부가 성과급 제도를 폐지하고 일반 통상 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재광 전국공무원노조 광주본부장 등 2명은 성과급 배분을 방해했다며 유인주 서구청장 등 서구청 공무원 5명을 광주지검에 고소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U대회조직위, 대지진 피해 '네팔 선수단 돕기' 나선다

항공료 지원 문의 해와...조직위, 29일까지 1층에 모금함

대지진 피해로 정부지원이 끊긴 광주 U대회 네팔선수단이 항공료를 마련하지 못해 대회 참가마저 불투명한 것으로 알려져 대회 관계자들이 안타까워하고 있다. 광주 U대회는 급한 대로 조직위 사무국 내에서 네팔 선수단 돕기 모금함까지 마련했지만, 수천만원대에 이르는 경비를 자체적으로 모으기에는 역부족이어서 광주시민의 동참이 절실하다. 21일 광주 U대회 조직위에 따르면 오

는 29일까지 조직위 1층에 성금 모금함을 마련하고 네팔 선수단 참가경비를 모금 중이다. 윤장현 광주시장이 이날 첫 성금을 냈으며, 조직위를 비롯한 시와 시 산하 기관도 동참하기로 했다. 12개 종목 88명의 선수와 임원이 참가할 예정이었던 네팔 선수단은 지진 참사 후 52명으로 참가인원을 축소했지만, 이마저도 정부에서 지원 불가를 통보하면서 32명의 항공료를 마련하지 못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네팔 선수단은 최근 광주 U대회 조직위에 이 같은 어려운 사정과 함께 항공료 3200만원을 지원해줄 수 있는 지원 문의한 상태다. 대회 개인엔트리 접수일인 내달 3일까지 항공료가 마련되지 않으면 20명 안팎으로 선수단을 꾸릴 수밖에 없다는 게 네팔 선수단의 입장이다. 하지만 네팔 선수단이 참가하더라도 1인당 1일 10유로(1만2000원)인 선수촌 이용료 등도 큰 부담이다. 일단 광주로 입성하는 게 급선무인 네

팔 선수단은 항공료만 마련되면 나머지 경비는 어떻게든 마련해 보겠다며 강한 참가의지를 보이고 있다. 김운석 광주 U대회 조직위 사무총장은 "고통을 겪고 있는 네팔 국민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을 줄 수 있도록 U대회에서 승전보를 울리고 싶다는 게 네팔 선수단의 바람"이라면서 "이들이 대회참가에 불편함이 없도록 다양한 방식의 지원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광주U대회 참가를 신청한 국가는 153개국 1만3800명이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세월호 인양 국제입찰 공고

6월 중순까지 접수·7월 선정

해양수산부가 세월호 인양업체 선정을 위한 국제입찰공고를 22일 내기로 하고 구체적인 조건을 21일 공개했다. 해수부는 이번 입찰에서 미수습자 9명의 유실을 최대한 방지할 수 있도록 인양업체에 세월호 선체원형을 온전하게 인양할 수 있는 기술과 잔존유를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을 기본적으로 요

구하기로 했다. 세월호 규모의 선체를 정부에서 인양한 사례가 없기에 국가계약법을 준수하도록 적용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표준 계약방식을 활용한다. 기술평가 점수(80%)와 가격평가 점수(20%)를 종합해 고득점 순으로 적격업체를 선정하며 국부 유출 우려를 줄이고자 국내외 업체간 컨소시엄을 구성하면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 /연합뉴스

매 각 공 고

“요양병원” 운영자를 모집합니다

(매매 및 투자자)

위 치 : 광주광역시 남구 월산동 919-1번지 (40m 대로변 접면위치, 건강관리협회 건너편)
 대 지 : 522.3㎡(158,15평)
 연 면 적 : 2,073.86㎡(627,96평)
 층 수 : 지하1층, 지상8층
 건축물용도 : 병원(요양병원)
 허 가 번 호 : 2013-건축과-신축허가-108호(2013.10.18)
 토지소유자 : 서양새마을금고
 건 축 주 : 서양새마을금고
 공사완공예정일 : 투자자 계약 후 3개월 완공 예정

※ 매각사유
 - 대출관련 유입물건을 매각합니다.
 - 유입당시 공정을 40% 진행되어 있는 요양병원 건물로서 요양병원을 운영하고자 하신분께 매각하고자 합니다.
 ※ 계약즉시 토지, 건물에 대하여 투자자에게 소유권 이전

서양새마을금고
 전화문의 010-7659-8900

마음의 소리를 듣고
 고객의 입장에서 공감하며
 전문성으로 만족스런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서명심 변호사입니다.

형사
 민사
 가사
 행정

사기·성범죄 / 개인회생·파산
 이혼·재산분할·위자료 / 상속

상담 ▶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법률사무소 名家 변호사 서명심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로 70, 동산빌딩 1층(법원 버스정류소)
 대표전화 062)227-7223 팩스 062)227-7224

빌려주고 못 받은 돈 회수 해 드립니다.

(금융위원회 99-7호)

세일신용정보(주)는 국내 각 금융권을 대표하는 새마을금고연합회, 삼성카드, 신한캐피탈, 한국캐피탈, 전북은행이 주주로 참여한 믿을 수 있는 회사입니다.

- 차용증,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뚜렷한 대인이 없는 경우
- 채무자가 타인명의로 재산을 빼돌린 경우
- 강제집행 등 법 조치를 하고 싶는데 채무자의 재산내역을 알지 못하는 경우
- 채무자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해야 할 때
 - 가압류/소송/집행까지
 - 전담 법무사와 Non-stop 서비스
- 민사채권, 물품대금, 공사대금, 미수금 등
- 채권회수는 타이밍 싸움입니다.
- 결정을 미루는 사이 채무자는 재산이전, 폐업, 소재불명으로 이어집니다.
- 빠른결정만이 소중한 재산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 재산조회비용 無 ☑ 착수금 無

영업사원 모집

대표전화 : 062) 531-5990 010-2069-5958

세일신용정보(주)